

GRACE 선교소식

2025년 6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간, 일천번제 새벽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레이스타임 말씀 범위가 역대하로 이어지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권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품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드리는 수고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선교적 모델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마무리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목회와 선교 사역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감당하는 선교 사역과 모든 섬김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총권사회(회장 임낸시 권사님) 주관으로, 금년에 새로 임직받으신 신임 권사님들을 위한 환영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약 500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연령별로 조직된 권사회에 소속되어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들께서 중보기도와 선교, 교회 내 다양한 봉사 사역을 얼마나 열심으로 감당하고 계신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반드시 상급이 될 것을 믿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는 VBS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VBS에는 총 690명의 학생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OC 교회 연합성가제: 6/29
- 당진 동일교회 부흥회 인도: 7/16-7/18
- 창원 양곡교회 창립110주년 부흥성회: 7/20-7/23
- 도림교회 부흥성회: 7/25-7/27
- 필리핀 TD 1기: 7/28-8/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들과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두가 진지하고 뜨겁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세대의 꿈나무들을 바라보며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M국

곽OO / 엄OO 선교사

지진 피해를 입었던 선교센터의 무너졌던 담을 튼튼하게 복원하고, 내부 구조를 일부 변경하며 새롭게 보강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소외된 가정이 많기에, 심



방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1층에는 약국과 미용실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의 장소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수년째 견지 못해 재발 중인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할 수 없어 방송 수업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해 재활 장비와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며, 꾸준한 방문과 기도, 격려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던 학생이 이제는 똑바로 서기도 하고, 비록 힘겹지만 조금씩 걷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방 사역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마을 중심에 세워진 개척교회 MOA에서 매일 교회에 모여 공부하는 어린이들에게 신학기를 시작하며 교복을 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M국은 아직 인프라 시스템이 탄력성 있는 분야가 많기에 간호(병원 취업)부분과 약 판매(약국 운영) 부분을 위한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가능합니다. 2가지 자격증을 위해 청년들이 학원에 다니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새소망교회 공동체

GTM선교회의 후원(옷, 샴푸류, 세제류 등)으로 캄보디아 새소망교회 공동체에 풍성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고급 제품으로, 나눔의 현장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잔치였습니다. 특별히 4개 교회 연합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 물품을 나눌 때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워진 새소망 공동체와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특히 뚜얼크삿새소망교회 비차이 사역자의 여동생이 교통사고 후, 두 다리를 잃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녀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새소망 방과 후 학교 / Light & Salt 장학생

빛 소금 장학금을 통하여 캄퐁츠낭 분원의 학생들(현지 교회 리더들을 위한 성경 및 신학교육)과 초, 중, 고 학생들을 교회별로 선별(50

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하여 이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 깊게 느끼게 하고,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각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1인 3만 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지난 4월엔 Pre-TLTS 소그룹 성경공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각 교회 사역자들로 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 교회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캄장신은 이제 마지막 학기로 2024-2025년 학기가 6월 말에 마치게 됩니다. 학기 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졸업여행(6/30-7/2), 전도 여행(7/8-10), 졸업식(7/23) 등의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졸업하는 학생들이 각 교회에서 사역할 때 흔들리지 않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여행은 캄퐁츠 지역으로 떠나는데 70여 명의 학생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70인 전도대처럼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암송 운동

(Bible Memorization Movement)

말씀 암송 운동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캄장신에서 3개 학년이 암송

훈련 중이고, 20명이 100절 이상을, 1명이 200절을 완벽하게 암송하여, 신학교 전체 예배 시간에 말씀 암송 시연을 하였고,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캄퐁츠낭에 51세 여집사님이 190절을 암송하고, 끄라체에서 고3이 100절을, 건달에 초6 학생과 청년 3명이 100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암송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다른 곳에 사용되는 시간이 줄게 되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은 설교와 기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씀 은혜가 이 땅 캄보디아를 복되게 하리라 확신합니다.

올네이션 학교

조정아 선교사가 교장으로 섬기는 올네이션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와 발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며, 말씀 암송과 예배의 모습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90% 이상인 학생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학업을 시작하고, 매주 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네이션 학교에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믿음을 배워 캄보디아 전역에 기둥같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5월 한 달은 신학 공부와 언어 공부에 전념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한 신학대학원 과정은 감사하게도 과제들을 밀리지 않고 잘 수행하며 봄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스니아어는 초기에 어려웠던 격 변화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실제로 제 입

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음을 느낍니다. 보스니아에 온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



다. 이제는 천천히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환으로 피아노를 통해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합니다. 피아노 자체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를 사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기보다는 꾸준히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마련된다면 복음을 위한 전략들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당분간은 사무실 임대에도 집중하며 준비하려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국

김OO / 김OO 선교사

모두가 아시다시피 13일 새벽3시 I국이 I국의 여러 핵시설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을 공습했습니다. 이에 I국은 드론으로 반격을 시작했고 I국은 계속해서 추가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의 정부의 공식입장은 I국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더 이상의 긴장 고조와 전쟁 확대를 반대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총리가 천명했습니다. 다만 I국에는 미국과 I국의 지원을 받는 I국 정부와 쿠르디스탄정부와 함께 I국군에 속했으면서도 이란의 영향을 받는 PMF(Popular Mobilization Forces) 군사조직과 IS의 잔존세력들이 공존하고 있습

니다. 이란이 극단적 방법으로 미군기지를 공격하게 될 경우 이들의 충돌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쿠르디스탄-에르빌은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미군 공군기지가 있고 미영사관 있는 관계로 이란의 미사일, 드론, PMF, IS의 공습에 대비하여 비상 상황입니다. 이라크 영공은 폐쇄되었고 에르빌공항을 포함한 이라크 모든 공항도 잠정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미대사관은 4단계 여행금지령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안전지침을 공지했습니다.

- 되도록 실내에 머물 것, 지역 언론 및 국제뉴스를 주의 깊게 시청
- 각자 있는 지역의 대사관 영사관 연락처 확인하여 긴급시 연락할 것

저희는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 1개 Packing을 준비했고 이곳에서 교체하는 미국 NGO 단체의 메뉴얼에 맞추어 긴급사태시 함께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제목

1. I국, 이란,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2.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특별히 이라크 땅이 더 이상의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과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3.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교회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선교사님들, NGO 단체들 주의 보혈로 지켜 주소서
4. 저희 부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영적으로 대처하며 마음의 평강과 안전을 위해서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가라투 센터 노동절 체육대회

지난 5월 1일 노동절, 가라투 선교센터에서는 평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던 사역자들, 학교 교사들, 센터 스텝과 일꾼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며,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의 몸으로 함께 섬기는 동역자임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하루는 활기찬 체육대회로 이어졌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땀 흘리며 웃고 뛰는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삶과 사역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음이의 수술 일정

그동안 많은 기도와 상담 끝에 이음이의 수술 일정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일 한국으로 출국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고, 9월 16일에 선천성 근성 사경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약 한 달간의 재활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세 교정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을 앞둔 이음이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수술과 재활의 전 과정 속에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자 발급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음이의 수술이 2025년 4월에 예정되어 있었기에 그때까지는 관광비자로 머물며 수술 이후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일정이 계속 미뤄지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급히 장기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입국 전에 장기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만, 수술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결국 현지에서 급하게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자칫하면 거절될 수도 있었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월 25일에 비자가 신속히 승인되었고, 5월 6일에는 가라투에서 차로 2시간 30분정도 가면 있는 아루샤라는 지역에 가서 등록증(ID)을 만들었습니

다. 2주 뒤 등록증이 발급되었고, 5월 26일 다시 아루샤로 가서 등록증을 찾아 여권에도장을 받고 모든 체류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YWAM 제자훈련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가라투 센터는 YWAM(국제 예수전도단)의 원칙과 훈련 체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기초 제자훈련(DTS) 수료가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는 단지 형식적인 조건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다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언젠가는 받아야 할 훈련'이라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해 왔고, 최근에는 함께 사역하는 선배 선교사님의 권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가 뜻밖의 손길을 통해 채워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느껴 현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제주에서 진행될 CDTs(Crossroads DTS) 훈련 참여를 놓고 기도하며 분별하고 있습니다. YWAM 사역의 특성상 이 훈련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파송 교회와의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는 조심스럽게 기도 요청만 드립니다. 훈련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

정OO / 전OO 선교사

셀그룹의 활성화

그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복음을 전한 곳 바라 이 뿌리, 케닝 이라는 두 지역에서 힌두교도들의 핍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새롭게 셀그룹과 함께 다시 온라인 사역인 Zoom 사역을 사역자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비록 핍박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새롭게 개척하면서 들판에서 나무 밑에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대일 전도를 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나아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 위에 다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어심 문돌의 비즈니스 사역

어심 문돌이라는 비즈니스 사역자가 있습니다. 어심 문돌은 자기집 위에 2층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에어컨 기술 센터와 함께 12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비즈니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여태까지 힘들게 비즈니스 사역을 하면서 또한 예수를 믿고 집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무슬림, 힌두교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보살펴 주고 먹이고 하는 사역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어컨 기술센터에 한국 돈으로 삼백 만원 가치가 되는 에어컨 설비 부품들을 도둑들이 전부다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사람이 훔쳐 갔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CCTV를 검색하고 같이 일하는 12명의 직원들을 다 소환해서 급박하고 협박하면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아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서 다시금 비즈니스 사역과 함께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박전도 파티

해마다 5월~6월 중에 수박 전도 파티를 합니다. 이 전도 파티에서는 수박 색깔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수박의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씨는 (검은색)죄, 그리고 수박 바깥 (초록색)부분은 믿음의 자라남, (흰색)부분은 죄의 용서 등의 의미를 부여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박전도 파티를 하는 전도 파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덥고 비가 자주와서 야외에서 이 전도 파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수박전도 파티 세미나에서 배운 것처럼 날씨와 전도 상황이 어려울 때에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렵지만 지금 계속 사역자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사역 위에 사탄이 틈 타지 못하게 기도 해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한 알람무거지

그동안 인도에서 교제하고 같이 알고 지내던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알람 무거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알람무거지의 꿈은 한국에 가서 의학, 경영, 엔지니어 전공을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학교를 방문하고 그곳의 외국인 입학 요강을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학생들과 인도 학생들을 만나서 서로 한국 유학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부산, 인천, 서울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비전을 꿈꾸면서 일주일 간의 짧은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고 다시 인도로 왔습니다. 요즘은 인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한국 요리, 한국 가요 등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람무거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C국

조OO / 윤OO 선교사

신실한 세 형제와 함께 협력으로 섬기는 커피숍이 어느덧 2주년이 되었습니다. BAM이라 하기에 아직 미흡하고 경영도 미숙하지만 머지않아 사랑과 믿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Y강을 끼고 있는 C국 중남부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라 여기 저기 녹음이 우거진 공원이 많습니다. 가끔 머리 속에 복잡해지면 근처 작은 공원을 찾아 걸으면 초록의 싱그러움을 쳐다보며 심을 얻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하면서 바로 독립한 첫째와 마찬가지로 그사이 둘째 아들 역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득이 혼자 살기를 연습 중입니다. 덕분에 아내는 한국의 삶과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이 곳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지어와 문화를 익히고 있습니다.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은게 지금 이곳 현실입니다. 안팎으로 부대끼는 치열한 현장에서 현지인 동업자들은 종종 방향을 잃고 낙심하는데, 저는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전에 나눴던 것처럼 BAM사업의 일환으로 알아보던 한식당 사업은 이곳의 심각한 경기 침체와 높은 임대료 때문에 방향을 다각도로 다시 조정 중입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중입니다.

기도제목

1. 유스D스쿨의 학생모집과 운영정상화를 위해
2. 구상 중인 BAM사업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3.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4.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L국

천OO / 이OO 선교사

CtoC(Creation to Christ) 전도사역

올 초부터 L언어로 된 CtoC(Creation to Christ) 전도법을 암기하기 시작해서 지난 5월부터 1달 넘게 L국립대학교와 L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ㅇ어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약 13명이 복음을 듣고 1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양육사역

지난해에 예수님을 영접한 L국립대학교 영문과 졸업생인 A 청년과 함께 저희 집에서 매주일 오후에 약 1시간 30분간 영어성경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성경공부가 재미있다고 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체험도 하고 방언이 열리게 해주셔서 수업 시간 전 20분씩 방언기도 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전도훈련도 받고 전도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다른 지방의 모임에 참석하러 가다

가 주유소 카페에서 일하는 A 자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함께 6월 중순부터 성경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외국어대학 중문과 3학년 학생인 T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6월말부터 저희 가정에서 성경공부와 중국어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샌속 중학교 한국어 과정

저희가 학생비자를 받고 있는 샌속(행복)초중학교의 한국어 수업이 4월말에 끝이 나고 다음 학기는 9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한국어 공부에 열심히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데 미숙하여 많은 아이들이 공부에 힘들어 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치고 전하려면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높습니다. 이외에 사역언어 습득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먼저 이곳에 오신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라ㅇ어 성경기초용어반 1년 과정 공부를 이번 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9월 초부터는 마태복음 반에서 계속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L국과 T국에서 실시하는 C2C전도훈련과정과 CP교회개척훈련과정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올 하반기에는 T4T제자훈련 과정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전도를 통해 제자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개척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L국 청년들을 만나 교제하며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축구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청년들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월 말 미국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동남아 담당 사역자분들께서 이곳 L국에 방문해주셔서 함께 만나 은혜 받는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어훈련 및 기타 훈련

언어공부는 로고스외국어대학에서 라ㅇ어 중급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저희가 전도한 청년과 함께 저희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남짓 라ㅇ어와 씨름한 결과 감사하게 라ㅇ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전도되어온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



I국

남OO 선교사

지난 5월, 이 지역은 I국과 P국 간의 긴장으로 인해 다소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마음까지 조이게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6월의 더위 또한 만만치 않아 외출이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신학교는 방학 중이라 저는 7월 새 학기 개강을 차분히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일부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남아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 성경

쓰기, 영어 등을 배우며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며 성실하게 배우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모습이 제 눈엔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감사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다음 주에 비자 연장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번 긴장되는 과정이지만,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BPU신학교 (7월 1일 개강 예정)에 새롭게 입학할 학생들이 10명 이상 오게 되도록, 방학

중 고향에 내려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2. 외부 강사님들과 함께 진행될 7월 넷째 주 영성 훈련이 잘 준비되어, 신학생들이 영과 육이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3.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 기도의 삶을 잃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4. 신학교를 섬기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저를 비롯한 모든 협력 교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5. 6월 중순 예정된 비자 연장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간증문

I국 전도폭발: 리얼 판타지

성시영 집사 / G5

어렸을 적 성경 속 이야기들은 제겐 재미있는 동화 속 이야기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이야기들은 만들어낸 판타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년 전 예수님을 마음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온 제 삶을 생각하면 이견 환타지 보다 더 판타지 같은 리얼 판타지 같은 삶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저의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셨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제게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 같았고 '저나 제 이웃조차도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데 굳이 왜 선교지를 가야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는 저에게 가까워질 수 없는 미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주를 영접하시고 하늘에 가실 수 있게 한 전도폭발팀에 항상 빛진 자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부서에서 I국 선교를 간다기에 팀멤버 모임에서 밥이라도 퍼주며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무엘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I국 선교 준비 선포기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이 먼저 선교 대상지이며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선교지에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팀원이 영적으로 건강하며 깨어있도록 강한 선포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임 이후로 선교에 함께하고픈 마음이 들었고 주님께 기도로 컨펌 받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I국 선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어온 터라 고생할 각오를 하고 선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와 유익이 있었습니다. 선교부의 최윤희 장로님과 이병훈 집사님, 박혜숙 전도사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은혜교회가 그동안 선교로 쌓아온 노하우가 많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기선교 7원칙과 팀웍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배운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 선교지에서의 주의사항이나 선교의 기본 자세를 배워서 좋았습니다. 저는 선교 경험이 별로 없는 터라 선교여행을 위한 기도제목으로는 '선교부에게 배운 것을 잘 실천해 보자'가 일 순위였습니다.

드디어 I국 선교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데만 3번의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옆에 있는 팀멤버와 간증을 나누며 서로 감동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바이를 거쳐서 뉴델리에 가서 또 작은 국내선으로 I국 북부 다르방가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레이스 타임으로 큐티를 하였고 현지 목사님 교회에서 남병진 선교사님의 통역을 힘입어 전도폭발 수업을 전했습니다. 수업을 3일간 하면서 시차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인도 현지 캔디들의 참여 의지를 보면서 저희들은 점점 더 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I국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해서 믿는다고 들었던 터라 제가 있던 테이블에 있는 캔디들 한명 한명에게 다 물어보았는데 다들 온리 지저스라고 대답해서 놀랐습니다. 2일간은 수업 후에 팀 별로 전도폭발 복음제시를 가지고 마을에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저랑 같이 나간 I국 학생들이 복음제시를 너무 잘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전도폭발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도 프로그램이 계속 전해지고 교육이 되어진 결과였습니다. 팬데믹동안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선교도 멈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오히려 그 기간 이후에 I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저희팀은 풍선으로 강아지나 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물려들게 하였고,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들에게 복음제시를 하였습니다. 단체로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기뻐했습니다. 2일간 저희팀은 40명을 결신시켰고, 전체팀으로는 300명 정도를 전도하였습니다.

4일 후 원래 있던 지역을 떠나서 3분의 현지 목사님 교회를 팀으로 나누어서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곳에서도 새신자에게 복음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교육받은 I국 아이들은 류형수 장로님의 리더하에 복음제시를 잘 하였고 새신자 I국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를 느끼며 감동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I국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 Navin은 24개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유한 청년이지만 방탕하지 않고 알콜중독 아버지와 주변 부자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저는 다시는 가기 힘든 어느 오지를 갔다 왔다는 생각보다는 그곳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그들도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한 가족처럼 느껴져서 제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진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슈아라는 목사님 아들은 동생이 아프다는 기도제목을 보내왔는데 간절히 기도해주자 완전히 좋아졌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선교나 선교지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전해야 하며 저도 부족함에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들도 성령님이 그 길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선교 동안 저는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온 것보다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최윤희 장로님도 선교는 즐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팀멤버들은 모두 비슷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뭔가 힘든 선교지에서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고 올 줄 알았는데... 제 자신이 먼저 좋았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빛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신 기쁜 소식을 마치 한 가족처럼 전세계에 전해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단지 백조를 꿈꾸는 미운 오리 새끼인줄 알았는데... 저의 진실은, 즉 저의 정체성은 백조보다도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리얼 판타지의 삶으로 다 함께 가보실까요?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가라투 선교센터 일꾼들과 교사, 스텝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2. 이음이의 9월 수술과 이후 재활 과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3. 언어훈련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 안에 거하도록
4. 훈련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아르메니아 백승환 / 올가 선교사

1. 아르메니아에서 이슬람 국가로 장기파송한 6유닛의 선교사 가정의 신변안전과 매달 필요한 재정 후원을 위해서 (한 유닛당 월 5백달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불우아동, 장애인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
3. 여름캠프 시즌이 시작되면서 캠프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올 여름에도 5번의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캠프당 약 5천달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4. 아르메니아의 정치, 경제의 안정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5. 무슬림 지역 선교아웃리치와 아동사역에 꼭 필요한 15인승 중고미니버스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중고차 15인승 밴, 스프린트 비용은 약 2만5천달러입니다.)
6. 소망의 집짓기 프로젝트(Building Hope Project)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집 한 채 지어주는데 약 4만달러가 들어갑니다. 전에 비해 재료값이 많이 올랐지만, GMI 후원으로 지금까지 3채 소망의 집을 지어 줬습니다)
7. 선교사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L국 천OO / 이OO 선교사

1.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2.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3. 현재 전도되고 양육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4. 라오어 언어 습득에 지혜를 주시도록(현지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언어실력 향상)
5. 다음 학기 한국어를 가르칠 때 사랑과 지혜를 주시도록
6.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I국 정OO / 전OO 선교사

1. 셀그룹과 가정교회 사역들이 다시금 활성화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2. 사역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어심 몬들의 비즈니스 사역과 기술센터 사역 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비즈니스 사역 위에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도록
4. 저희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J국 최OO / 최OO 선교사

1. 5월에 믿음의 형제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먹고 자며 공동체로 합숙하며 말씀과 통성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했습니다(요르단 기도 의집과 GMI신학교). 단순한 공간이 아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도록
2. 믿음의 형제들 압달라, 야잔, 다니엘, 야히야, 아함, 필립, 라피등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으로 담대히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사역하도록
3. 난민학교 '비전의 집'의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난민 가정들이 셀교회로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미래의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4. 사우디, 오만, 튀르키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믿음의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위한 기도요청

현재 이스라엘은 공항이 폐쇄된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학교, 모임 등이 6월 18일(수) 밤 8시까지 '적색 경보' 하에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센터나 방공호 인근에서 머무르며 생활하고 계시고, 사이렌이 자주 울려 수시로 방공호를 오가는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점차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인접국인 Y국의 영공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에 대한 방어로 인해 사실상 폐쇄되었고, I국 역시 영공과 공항을 모두 폐쇄한 상태입니다. 6월 17일부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인접국가로 피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1. 말씀 암송운동을 통하여 새소망교회 모든 공동체와 캄보디아 25개 주에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2. 캄장신 본교와 시엠립 본교 그리고 캄퐁툼, 캄퐁츠낭 분원의 모든 학생이 하나님께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3. Light & Salt 장학생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회복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4. 율네이션학교 학교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의 모든 필요(교사, 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조정아선교사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5. 저희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모든 교회, 가정과 성도들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며,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하소서
6. 저희 부부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훈이는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성빈이는 건강히 전역(7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라스베가스 인카운터, 튀르키예 개척선교,
탄자니아 VBS, 쿠바 VBS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Fresno 단기선교 (6/29-7/2)
T/M: 5/17부터 매주 토 VC119, 5pm
리더: 류영선 집사
문의: 최성근 집사 (858-204-2259)
- 쿠바 신학생/청소년 인카운터 (6/29-7/6)
S/L: 설성훈 목사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 알래스카 인카운터 #1기 (7/2-7/8)
S/L: 송종호 목사
리더: 어예녹 집사
총무: 크리스틴 리 집사 (714-742-7428)
- 그리스 이슬람 난민선교 VBS 및 노방전도 (7/2-7/9)
리더: 김태형 안수집사 (213-393-3215)

- 케냐 의료선교 (7/6-7/16)
리더: 김영수 장로 (714-417-2001)
총무: 한 조셉 안수집사 (714-213-5033)

- 엘살바도르 인카운터 #4 및 VBS (7/1-7/27)
S/L: 케니 박 목사
리더: 이재운 집사
총무: 한 조셉 안수집사 (714-213-5033)

- 필리핀 TD#1 (7/26-8/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이희경 안수집사
문의: 안규범 안수집사 (714-328-4820)
TM: 6/26, VC106

- 파라과이 AFA#12 & 신학교 3기 졸업식 & 치과사역 (7/28-8/7)
S/L: 안영식 목사
렉터: 노우종 안수집사
TM: 6/26, VC223

- 중미 4개국 연합 AFA 1기 (8/31-9/6)
S/L: 송종호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OT: 06/25(수) 6:30pm, VC108

- 타지키스탄(두산베) TD (9/1-9/6)
S/L: 최윤섭 선교사/김영환 목사
문의: 213-500-5344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